

# 북한신문의 국제뉴스 내용분석

당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선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경모\*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 연구는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이 강조하는 국제정세선전과 당 대외정책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신문의 국제뉴스가 지닌 보도형식과 내용, 그리고 정세선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표적 일간지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국제정세선전 기사를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김정일 체제가 지향하는 최근의 대외정책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당 중앙이 의도하는 대로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정세추이를 선전 선동함으로써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이데올로기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도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두 신문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의 정치권력과 언론보도의 조응관계를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로동신문』, 『민주조선』, 국제뉴스, 당 대외정책, 국제정세선전

---

## 1. 머리말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이데올로기 진영의 대립 소멸, 대북관계의 점진적 개선과 교류확대에 따라 북한사회에 대한 지식욕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가는 현실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언론에 대한 이해는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된 북한 언론 연구는 시대변화에 따라, 그리고 일부 개인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점을 지닌다(강현두, 1997;

---

\* kkmo@yonsei.ac.kr

김영주, 1998; 이창현, 1999). 더욱이 북한 언론의 국제뉴스에 관한 본격적인 실증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혁·개방과 경제협, 외교관계 등 남북의 공존 또는 민족의 통일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재를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어떻게 다루는지 그 개별 뉴스에 대한 이해는 접어두고라도 북한 언론이 지닌 국제보도의 전반적인 패턴과 성격에 관한 기초 지식부터 부족한 형편이다.

북한 언론의 국제뉴스 보도는 국제정세선전을 통한 당 대외정책의 관철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앞세운다(조형창·리준하, 1982/1994; 엄기영, 1989/1998). 그러나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이 강조하는 이런 특성이 북한의 국제보도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국제 커뮤니케이션과 국가 외교정책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근대국가 형성이후 국제보도와 외교정책의 관계는 뉴스통신사와 매스 미디어를 매개 삼아 냉혹한 국제관계 현실에서 국가이익을 관철하려는 다양한 기제와 방식을 동원하면서 전개되었다.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관련된 뉴스통신사의 카르텔 구조와 역할 및 정보유통(Boyd-Barrett, 1980; Boyd-Barrett & Rantanen, 1998), 세계대전기의 전쟁심리전과 냉전기의 이데올로기 대리전(Fortner, 1993; Frederick, 1992), 발전명제를 내세운 제3세계 권위주의 정부의 언론통제와 국제 홍보(van Ginneken, 1998; Wells, 1996), 신자유주의 세계화기의 연성 권력(soft power) 또는 여론외교(public diplomacy)의 강화(Nye, 1990; Thussu, 2001)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시기와 조건에 따라 또는 적용범위와 대상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은 다를지언정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외교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협력자(partner)로서 미디어의 국제뉴스 보도가 일정 역할을 담당해왔다(Cohen, 1963). 따라서 국제뉴스 보도와 외교정책의 관계는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목적에서 볼 때 북한이 당면한 국제관계 현실을 풀어가려는 당 대외정책의 전개와 언론의 국제정세선전 실태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영역이다. 북한의 국제뉴스 보도는 하나의 특수한 사례가 된다.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과거의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 확보를 목표로 외교관계의 다양화와 이중전략을 구사하는 전방위 외교로 전환했다(김근식, 2002; 임재형, 2001; 정규섭, 1999). 국제정세선전을 통해 당의 대외정책을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북한의 신문은 이런 당 정책의 변화까지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최근 국제뉴스 보도는 어떤 형식과 내용을 통해 북한당국의 외교정책을 대변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조건과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이 강조하는 출판보도물의 국제정세선전과 당 대외정책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신문의 국제뉴스에서 나타나는 보도 형식과 내용, 그리고 국가유형에 따른 정세선전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표적인 저널리즘 이론서<sup>1)</sup>가 강조하는 국제뉴스 보도의 성격을 살펴보고, 김정일 체제의 당 대외정책에 담긴 전환기적 변화의 핵심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북한신문을 대표하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국제정세선전 기사를 내용분석하여 국제뉴스의 패턴과 성향이 당 대외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한다.

---

1) 우리에게 소개된 북한의 대표적인 저널리즘 이론서로 배순재·라두립(1967)의 『신문리론』, 조형창·리준하(1982)의 『신문학』, 엄기영(1989)의 『신문학개론』 등을 들 수 있다. 김영주(1992)는 『신문학』이 김정일의 언론사상을 잘 반영할 뿐 아니라 책의 내용도 풍부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신문학』을 요약한 것이라고 지적받지만 『신문학개론』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신문학과에서 교재로 사용된다(김영주, 1998). 따라서 이 글은 북한의 원전으로 두 이론서를 주로 인용한다. 『신문학』의 인용은 김영주·이범수(1994)의 자료집을, 『신문학개론』의 인용은 김영주(1998)의 편집본을 사용하였다. 북한원전의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 안에 적시하되 표현이 생경하거나 띄어쓰기와 어법이 틀렸더라도 그대로 살렸다. 문맥상 필요한 내용은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간접 인용으로 강조하되 어법이나 표현은 친숙하게 고쳤다.

## 2. 이론적 배경

### 1) 북한신문의 국제정세선전과 국제뉴스

북한의 대표적인 저널리즘 이론서인 『신문학』은 신문 등 출판보도물의 성격을 ‘당의 수중에 장악된 예리한 사상적 무기이며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 동원하는 위력한 선전선동수단’으로 규정한다. 당적신문<sup>2)</sup>으로서 북한의 신문이 강조하는 구체적인 선전내용은 정치사상선전, 경제문화선전, 그리고 정세선전에 집중된다. 여기서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과 그 발전추세를 제때에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적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정세선전의 목적이다(조형창·리준하, 1982/1994, 98쪽). 정세선전은 남조선정세선전과 국제정세선전으로 구분되는데, 남조선정세선전은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데 치중한다. 반면에 국제정세선전은 “인민들에게 국제정세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 특히 우리 혁명에 대한 련대성을 고무하고 국제적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반동을 철저히 고립”(조형창·리준하, 1982/1994, p.101)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당의 대외정책을 인민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관철시키기 위해 신문은 국제정세를 잘 취급할 것

---

2) “로동계급의 신문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신문이다. 로동계급의 신문은 로동계급의 당적신문에 의하여 대표된다. 로동계급의 당적신문이란 로동계급의 당의 수중에 장악되어있으며 당사상사업의 예리한 무기로 복무하는 신문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당적신문을 특징짓는 중요한 성질은 공산주의적당성, 로동계급성과 인민성, 대중성이며 그에 기초하고 있는 진실성과 전투성이다.”(조형창·리준하, 1982/1994, 50~51쪽) 당적신문의 일반적 기능은 ①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자적 역할 ② 인민대중에 대한 문화교양자적 역할 ③ 대중동원의 위력한 무기로서 역할 ④ 대적투쟁, 대적언론전의 위력한 무기로서 역할 ⑤ 대외선전과 외교의 수단으로서 역할로 요약된다(엄기영, 1989/1998, 300~304쪽).

을 강조한다.<sup>3)</sup>

이처럼 북한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외의 사건이나 관련 이슈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북한 나름의 시각과 원칙에 따라 기사화하여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국제뉴스는 북한신문에선 국제정세선전 기사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문을 포함한 북한의 출판보도물을 단순히 새 소식의 전달자로 볼 수는 없다. 그 성격과 기능이 자본주의 언론과 다르기 때문이다.<sup>4)</sup> 『신문학』이 강조하는 국제정세선전 기사의 주요내용은 이를 잘 말해준다(조형창·리준하, 1982/1994, 100~102쪽). 첫째, 국제정세선전은 김일성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존경과 흠모를 소개하고 선전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김일성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이 시대의 세계적 사조이자 세계정세발전에서 가장 의의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국주의와 지배주의에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자주성 투쟁이 점점 강화되는 국제정세발전의 기본추세’에 발맞춰 세계 모든 지역, 모든 나라 인민들의 자주성 투쟁, 그리고 북한의 혁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한다.

셋째, 미제와 국제반동들의 죄행과 음모책동을 철저히 폭로하고 단죄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간섭, 분열

3) 『신문학개론』에 따르면, “당적신문들은 국제정세자료를 잘 취급하는 것을 통하여 당의 대외정책을 관철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복무할 수 있다. 국제정세는 복잡다단하며 또 국제문제들에 대한 매개 나라들의 입장과 견해, 리해관계도 꼭 같은 것은 아니다. … 이런 조건에서 국제정세자료를 잘 취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관계를 발전시키며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세계여론을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 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잇닿아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하여 신문에서 언제나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379~380쪽).

4) 『신문학』에 따르면, 북한의 신문은 사람들에 대한 사상개조사업의 무기, 사상을 발동하는 정치사업의 무기, 사상정치적 선전수단이다. 당적신문의 일반적 기능에 비추어 본다면 국제정세선전 기사는 대적투쟁·대적언론전의 위력한 무기이자 대외선전과 외교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과 이간 책동을 감행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면서 세력권 쟁탈과 새로운 전쟁도발에 광분'하고 있고, '미국의 조종에 따라 모든 국제반동들이 자주성을 옹호하는 각국의 인민들에게 악랄하게 도전'하는 상황이 현 국제정세의 실상이라는 것이다.

『신문학개론』 역시 비슷하게 국제정세선전의 내용을 제시한다(엄기영, 1989/1998, 379~382쪽). 국제정세선전 기사는 무엇보다 세계혁명과 새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나라들의 성과를 소개하고 선전하는 자료들을 우선 취급한다고 설명한다.<sup>5)</sup> 북한의 혁명위업에 대한 세계 각국과 인민들의 지지 그리고 국제 연대성에 대한 자료도 국제뉴스의 중요한 보도원천이다.

다음으로,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아성인 미제를 폭로하고 고립, 약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3세계권 국가들의 '정부전복 군사정변이나 음모책동도 모두 배후조종자인 미제를 단죄하는 방향에서 취급'하도록 주문한다. 군국주의자, 제국주의자, 복고주의자, 인종주의도당 등 '국제반동세력의 침략과 약탈정책, 범죄 음모책동에 대한 자료들을 제때제때 반영'할 것도 함께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 예를 들면, 국제적인 질서와 제도, 국제무대에서 통용되는 각 분야의 용어들에 대한 자료도 중요하게 다루도록 언급한다.

결론적으로, 『신문학』과 『신문학개론』은 강조하는 순서, 보도사례 예시 등 세부적인 서술에서 약간 차이를 보일 뿐 국제정세선전에서 다룬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제시한다. 즉, ① 세계혁명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사회주의 및 국제 공산주의 운동 투쟁성과, 신흥국가 및 발전도상국가의 새 생활 투쟁,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계급 투쟁), ② 북한에 대한 지지와 혐오(김부자

---

5) 예를 들어, 사회주의 나라들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성과, 사회주의 나라들의 통일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승리를 위한 투쟁, 신흥세력나라들·발전도상나라들의 새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 제국주의·식민주의 기반 밑에 있는 나라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독립을 위한 투쟁, 자본주의 나라 노동계급의 투쟁 관련 자료를 우선해서 기사로 다루도록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찬양, 북한당국 지지와 친선), ③ 제국주의 반동세력에 대한 비판(침략, 전쟁 책동 및 죄행 폭로), ④ 국제정세 해설(시사용어 등)과 같은 자료를 집중 보도할 것을 강조한다(김영주, 1998). 하지만 당 대외정책을 관철하려는 사상 교양의 선전수단으로 국제뉴스를 이용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자료들은 북한신문의 국제정세선전 기사가 무엇을 다룰지는 짐작케 하지만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궁급하다. 따라서 어떤 보도 프레임이나 성향을 통해 뉴스로 구체화되는지, 또 북한이 인식하는 국제관계의 지형이나 최근 외교노선의 방향이 국제뉴스에서 어떻게 제시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신문의 국제정세선전은 방법상으로도 일정한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조형창·리준하, 1982/1994, 102~103쪽). 우선, 오늘날의 국제무대는 ‘지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 혁명역량과 반혁명역량 사이에 복잡하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또 주변정세가 특별히 착잡한’ 조건이므로 국제보도는 ‘주체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벗과 원쑤, 옳은것과 그른것, 리로운것과 해로운것을 옳게 식별하여 국제정세선전을 혁명에 리롭게 할 수 있다”(102쪽).

다음으로, 국제관계에는 언제나 각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예리하고 노숙하게’ 정세선전을 수행하도록 주문한다. 피아 구분에 따른 외국과의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정세의 본질을 예리하게 밝히고 적들과의 선전전이라는 대외적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노숙하게 전개’하라는 것이다.

국제정세선전은 또 ‘주도권을 틀어쥐고 연속타격, 집중포화를 퍼붓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적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혁명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광범위하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도와 논평을 적절히 배합할 것도 강조한다.

결국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서에 따르면, 국제정세선전 기사는 서술형식과 방법에서 전형적인 선동방식을 따라야 한다. 북한을 항상 중심에 두고 당 중앙의 입장에서 사태를 주관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바라보며, 피아의

구분에 따라 보도대상에 대한 호불호를 분명히 하고 이른바 ‘전투적인 문필 형식’을 사용하여 공세적이고 집중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요구받는다.<sup>6)</sup> 따라서 북한이 당면한 국제 문제를 풀어가려는 대외정책상의 입장과 의도에 따라 사건, 이슈, 인물 등 보도대상에 대한 논조가 극단적으로 구별되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sup>7)</sup>

당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선전의 관계에 대해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서가 서술하는 내용들은 공산주의 언론이론 일반이 강조하는 것처럼 저널리스트가 따르고 고양할 바를 독려하는 긍정적 통제(affirmative control)와 규범이론적인 정향이 강하다. 형식 또한 과학적인 진술이라기보다 일종의 실무 지침서 또는 스타일북에 가깝다. 실제로 『신문학』과 『신문학개론』은 신문 종사자의 교범(field manual)처럼 활용된다(김영주·이범수, 1994). 그런 점에서 국제보도는 북한당국이 인지하고 분석하는 방식대로 신속하게 국제정세를 선전하고 주민을 선동하는 이데올로기 도구로 기능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는다. 따라서 북한신문이 국제뉴스에서 관심을 두고 현저하게 부각시킬 논제가 무엇이고 어떤 관점과 의도에 따라 기사의 틀을 짓고 편집할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별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뉴스가치를 판단하는 게이트키퍼를 통해 국제뉴스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것이 아니므로 언론의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신문간의 국제보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당의 주체적 입장에 확고히 서서 국제정세선전을 진행’해야 “우리 당의 대외정책을 관철하며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대외적 의의

6) 북한신문이 당국의 정책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가정 하에 남북관계 관련 기사의 정보처리 구조를 분석한 김정현 등(1999)은 북한신문에서 기사문장의 통합적 복잡성이 남한신문보다 높은 것은 선전도구로서 과도한 수사적 양식(rhetoric style)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7) 『신문학개론』은 북한의 대외관계를 고려한 국가의 성격과 지역의 특성, 또는 정책관점을 반영한 주제와 소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정세선전의 뉴스가치와 논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시한다. 북한신문의 국제뉴스 분석은 국가유형, 외교관계 등을 변인화 하는 연구 설계가 유용하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



를 지닌다(조형창·리준하, 1982/1994, 102쪽). 보도관행상 의견의 다양성보다 ‘당의 주체적 입장’에 따르는 통일성 또는 획일성이 더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대외정책의 형성과 작용에 미디어가 관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 미디어는 시민에게 정책과정을 알리는 관찰자(observer), 정책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participant), 그리고 정책과정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북돋는 촉매자(catalyst)로 기능한다(Cohen, 1963). 그러므로 사회적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민주사회의 정책과정에는 미디어, 정책결정자, 시민(수용자)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사회적 논제로 공론화됨으로써 입안된 정책이 검증받고 정당성을 확보해간다(Cobb & Elder, 1971; Dearing & Rogers, 1996). 그러나 북한의 언론이론에 따르면, 미디어는 당과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내부기관이며 국가와 인민대중을 연결하고 지도하는 사회적 접착제(social glue)로 기능한다(강현두, 1997; 김영주, 1998; 박춘서, 1998; 안영섭, 2000; 유재천, 1989). 신문은 오직 당적신문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북한신문의 국제뉴스가 지닌 성격과 기능 역시 당 대외정책을 반영하는 국제정세선전을 통해 주민을 조직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선에서 규정되고, 또 그 점에 국한될 것이다. 국제뉴스를 통해 당 중앙의 정책방향과 의도를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로 작용하므로 정책과정에서 미디어의 주체적인 역할은 매우 제한될 뿐이다.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서가 제시하는 국제정세선전의 보도 형식과 내용은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열개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에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는 국제관계의 변화와 역동성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북한 대외정책의 실제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북한신문이 보도하는 최근의 국제뉴스는 김정일 체제가 강조하는 대외정책의 기조와 목표, 그리고 행동과 의도 등을 반영하고 선전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당국이 추진하는 대외정책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당 대외정책의 변화와 국제뉴스의 반영

정권수립 이후 북한은 이데올로기 대립이 첨예하던 냉전기를 거치면서 진영 외교를 전통적인 대외정책으로 견지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 및 남한과의 적대적 갈등관계에서 유발되는 체제유지와 안보문제를 사회주의권의 직접적인 정치·경제·군사 지원과 제3세계권의 배후적 우호관계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했던 것이다.<sup>8)</sup>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권력의 연쇄붕괴, 제3세계 비동맹권의 결속력 해체, 남한의 소련·중국 수교 등으로 국제환경이 급변하자 북한은 외교적인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에 김일성 사망, 경제난 등이 겹쳐 국내사정 또한 악화일로를 달리면서 1990년대 내내 체제보전 자체가 어려운 심각한 위기 상태에 봉착해 있었다. 이러한 내우외환을 극복하고자 김정일 체제의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앞세우면서도 대서방권 관계개선과 옛 사회주의권과의 관계회복을 동시에 모색하는 전방위 외교로 대외정책의 기본틀을 다변화시켰다(김근식, 2002; 임재형, 2001).<sup>9)</sup>

전방위 외교라는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여러 면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먼저, 김일성 사후 ‘유혼통치’ 명분으로 예전의 대외정책 기초

8) 동서 진영의 이데올로기 대립구도 속에선 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가치 아래 사회주의권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국제현실과 ② ‘제국주의 침탈을 받는 같은 처지’라는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제3세계 비동맹권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남한과의 외교전쟁에서 승리하고 혁명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정세판단이 전통적으로 진영 외교를 추구하게 한 주요원인이 다(임재형, 2001). 그러나 진영 외교는 대서방외교의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을 함께 안고 가는 정책이었다.

9) 이런 정책변화에는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남한의 대북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역대 남한정부의 ‘흡수통일론’에 대응해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정책은 통미봉남(通美封南), 곧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교섭에 나서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인식, 경제난 극복과 대서방권 관계개선에 남한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남한과의 관계개선도 포함하는 대외정책의 변화를 모색했다(임재형, 2001).

를 유지하면서도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외교목표를 수정하거나 외교행동을 다변화하는 모습도 함께 보인다(김근식, 2002; 정규섭, 1999).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자 활동원칙으로서 김일성이 정립했던 ‘자주·평화·친선’은 1992년의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 처음 명시<sup>10)</sup>되었는데, 이 원칙은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를 뒷받침하는 1998년의 개정 헌법에도 그대로 존속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전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평화위업에 적극 기여’하고자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하였다.<sup>11)</sup> 행동에 나선 북한은 김정일의 정상외교를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전통적 우방 러시아, 중국과 경제실리 중심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였다.<sup>12)</sup> 또 체제유지를 보장받는 대외환경의 안정적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대미관계 개선에 외교역량을 집중하면서 일본과의 수교협상도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단기간에 서유럽 국가들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서방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변화를 보였다.<sup>13)</sup> 더불어 동남아, 오세아니아 국가들과 협력관계

10)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의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11) 2001년 1월 1일자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12) 북한은 200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과 2001년 1월의 상해방문, 2001년 9월 장쩌민 주석의 평양방문을 통해 중국과 우호관계를 회복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러공동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2001년과 2002년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른바 ‘신북방삼각관계’를 구축한 것이다(백인학 외, 2001).

13) 북한은 2000년 1월 이탈리아와 국교수립을 시작해서 2001년 3월의 그리스까지 서유럽의 9개 국가와 연쇄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2001년 5월에는 유럽연합

를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sup>14)</sup>하는 등 가시적인 대외관계의 다변화가 일어났다.

한편,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외교정책의 전환과정에서 북한은 대외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군사주의와 경제 실리주의를 병행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했다(대입재형, 2001). 이중전략은 미국 및 일본과의 협상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미·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련의 접촉에서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쟁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를 경제보상의 획득이라는 실리적 이해와 연계시켜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에서 비롯된 위기국면에서 경수로 건설 및 중유지원 보장을 대가로 핵사찰을 받아들인다거나, 1999년 금창리 지하 핵 의혹 역시 미국의 식량지원 보장과 연계시켜 방문조사를 허용한 바 있다.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일본과의 수교협상은 미사일 문제를 매개로 식민지배의 사죄에 따른 대일청구권 문제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전방위 외교의 이중전략은 체제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실용주의적 인의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풀이된다.<sup>15)</sup>

---

과도 국교관계를 수립했다.

- 14) 북한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사회주의 국가나 비동맹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쌍무적 관계를 강조하던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 아시아권에서도 경제적 실리를 앞세우는 전방위 외교로 전환했다(박성관, 2003). 이 과정에서 태국과 싱가포르는 북한의 10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2000년 7월 아세안안보포럼(ARF)에 가입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처음으로 군사안보 문제를 협의한 바 있고, 호주(2000년 5월), 필리핀(2000년 7월), 뉴질랜드(2001년 3월)와 국교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계의 지평을 확대해왔다.
- 15) 북한의 생존전략 자체가 확실하게 내부를 통제하면서 외부의 지원과 협력을 끌어들이야 하는 이율배반적 목표를 지니므로 대외정책 역시 양면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개방을 모색하면서도 뒤따르는 정치적 위협 요소를 제어하고자 제한된 개방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② 강한 상대와의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이를 체제 내부의 응집력과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며, ③ 시기와 의체에 따라 대상국을 달리하는 협상채널의 다변화를 통해 외교적 흥정에 따르는 실익과 내부설득용 명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대외정책의 특징들이 나타난다(이성봉, 2004).

결국, 김정일 체제에서 당 대외정책은 ①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체제유지를 보장받고, ②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통해 막대한 경제지원을 획득하며, ③ 옛 사회주의권 국가 및 제3세계권 국가와 선린우호와 경제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④ 북미관계의 교착에 대응하는 외교적 탈출구 및 경제적·인도적 지원자로서 서유럽과 동남아 국가를 활용하기 위해 대외관계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정규섭, 1999; 김근식, 2002). 그렇다면 이러한 당 대외정책의 핵심은 북한신문의 국제뉴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 패턴과 성향으로 나타날까?

북한신문의 국제정세선전은 당의 대외정책을 반영·관철하여 혁명공업의 완수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국제뉴스는 전통적인 대외정책의 기초를 따르는 관성도 지니지만 외교관계의 다변화와 강한 양면성의 이중전략을 구사하는 전방위 외교의 탈냉전기 특성을 반영하리라 가설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관계에서 피아 구분이 뚜렷한 국가유형에 따라 보도의 차별화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어, 체제보장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대미 보도와 경제지원을 노리는 대일 보도는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sup>16)</sup> 양국에 대해 적대적인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뉴스는 북한주민을 당의 지도아래 결집시키고 통제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 등 옛 사회주의 2세계권과 3세계권 비동맹 국가 관련 보도는 매우 우호적인 관점을 취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외교적 고립감을 탈피하고 국제 연대성을 고무하는 소재와 주제에 집중하여 주민의 조직 동원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일을 제외한 1세계권 국가 관련 보도 또한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 탈냉전시기에 경제적·인도적 지원자 또는 외교관계의 협조자로서 1세계권이 지닌 가능성을 일부러 배제하진 않을 것이기

16) 북한이 국제뉴스를 통해 일본의 경제지원 유도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매우 공세적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수교협상 등 대일 접촉과정에서 일제의 식민지 배라는 역사적 과오를 준엄하게 꾸짖고 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대일청구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신문의 국제보도가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지닐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당과 정부의 언론통제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두 신문간의 보도차가 발견된다면 이는 대외정책의 관철 과정에서 당과 정부가 수행하는 각기의 고유 역할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선전의 관계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탈냉전시기 북한의 당 대외정책과 최근 국제뉴스 보도의 조응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조응관계가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서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외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고유 역할을 유추해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연구문제 1: 북한신문의 최근 국제뉴스는 당 대외정책을 어떻게 반영하며 그 보도 패턴의 특징은 무엇인가?

- 1-1. 국제뉴스는 국가유형에 따라 보도량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1-2. 국제뉴스는 국가유형에 따라 주제영역과 주제프레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1-3. 국제뉴스는 국가유형에 따라 국가 및 지도인사의 이미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1-4. 주변 4대강국 관련 국제뉴스의 보도 패턴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연구문제 2: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최근 국제뉴스는 보도의 형식과 내용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 2-1. 두 신문은 보도형식(기사유형, 출처, 교시인용, 사진처리, 기사크기)에서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2-2. 두 신문은 보도내용(주제영역, 주제 프레임, 국가 및 지도인사의 이미지)에서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 3.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뉴스표본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를 분석하기 위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선정하였다. ‘당보’인 『로동신문』은 매일 6면씩 주7일 발행되는 최고의 권위지다.<sup>17)</sup> 북한 전역의 모든 당원과 당일군을 독자로 삼는다. 『민주조선』은 화·금요일 6면, 기타 요일 4면씩 주6일 발행(월요일 휴간)되며 ‘공화국정부기관지’의 성격과 임무를 지닌다.<sup>18)</sup> 전국의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독자층을 구성한다. 두 신문은 ‘전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중앙신문’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일간지들이다.

두 신문은 기사내용의 주제와 분야별로 지면배치를 결정하는 지면의 전문화가 뚜렷하다(추광영, 1991). 국제정세선전에 주력하는 국제뉴스는 면수나 요일에 관계없이 대부분 마지막 면에 실린다. 따라서 2003년에 발행된 『로동신문』의 6면과 『민주조선』의 4면과 6면을 모집단으로 삼고 주 구성 표집(constructed week sampling)에 따라 가상의 4주를 구성한 뒤 해당 날짜의 국제기사 전수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sup>19)</sup> 표본으로 선정된 기사는 모두

17) 『신문학』에 따르면, ‘당과 수령의 의도를 대변’하는 당보는 “국제무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의 의도대로 분석평가하고 처리함으로써 그에 대한 당의 립장과 견해를 대변한다.”(106쪽)

18) 『신문학』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며 우리혁명에 대한 국제적연대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글을 쓰고 편집하여야 한다.”(112쪽)

735건으로, 28일치의 『로동신문』은 528건(71.8%), 24일치의 『민주조선』은 207건(28.2%)이었다.

## 2) 변인의 개념화와 측정

이 연구는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를 북한지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관련 이슈를 다룬 기사로 정의한다. 『신문학』에서 말하는 국제정세선전 기사를 포함한다. 남한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관련 이슈를 보도한 남조선정세선전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한다.<sup>20)</sup>

북한이 당면한 국제관계 현실은 북한신문의 국제뉴스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국제보도가 그리는 세계상에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는지 보고자 국가유형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국가유형은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로 구분하였다. 국가처럼 전통적인 국제행위자(international actor)로 간주되는 국제기구도 함께 국가유형의 하위유목으로 설정하였다. 국가유형 분류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구교태·김세철, 2004; Kurian, 1992).<sup>21)</sup>

국제정보흐름의 질적 불균형 문제는 국제뉴스에서 관찰되는 보도국가의

- 
- 19) 북한신문을 내용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두 신문의 전반적인 보도 형식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유재천, 1995; 추광영, 1991). 따라서 두 신문의 표집일자를 서로 달리하여 각각 가상의 4주를 구성하였다. 언론통제가 심한 북한신문에서 같은 날짜의 기사표집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두 신문간의 동일성을 필요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로 다른 날짜의 기사표집은 분석대상 사건과 이슈, 보도국가의 다양성을 늘리는 효과도 지닌다. 『민주조선』은 월요일 휴간이므로 표본에서 월요일이 빠져있다.
  - 20) 유재천(1995), 추광영(1991)은 명확하게 정의하진 않았지만 대외관계 분야 기사로 국제뉴스를 설정한 바 있다. 이 경우 『신문학』에서 말하는 남조선정세선전 기사까지 포함하므로 국제뉴스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결과를 낳는다.
  - 21) 국가유형의 분류는 서유럽과 북미 등 자유 진영의 국가들을 1세계로, 러시아, 중국, 동유럽 등 옛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을 2세계로, 2차대전 후 신생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발전도상국들을 3세계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유형화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도국가 또는 그 국가의 지도인사(국가·정부수반, 각 부처 장관, 정당대표)나 국제기구의 지도자를 북한신문은 어떤 시각으로 다루는지 국가(국제기구) 이미지와 지도자 이미지라는 속성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두 변인 모두 해당 주체(또는 보도대상)의 행위나 발언, 태도, 정책 등을 기사에서 인정하거나 지지하면 긍정/호의로, 단순하게 사실 정보만 객관적으로 제공하면 중립으로, 반대 또는 공격하거나 비난하면 부정/적대로 측정하였다.

국제뉴스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기사의 주제영역과 주제 프레임도 고려하였다. 주제영역은 기사의 일반적인 토픽(topic)을 말한다. 유관연구의 분류항목을 참조하여 정치·국제정치, 경제·국제경제, 사건사고·사회, 문화·교육·예술, 군사·국방·안보, 과학·기술·환경, 내전·쿠데타 등으로 재구성하였다. 주제 프레임은 기사에서 드러내려는 핵심주제(primary theme)를 말한다. 주제 프레임은 특정 어휘의 사용, 보도대상의 어떤 측면에 대한 강조나 생략, 수사적 장치 등에 주목하여 뉴스내용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이야기 줄거리나 문단, 즉 미디어 패키지(media packages)를 재구성함으로써 드러난다(Gamson & Modigliani, 1989; Tankard, 2001).<sup>22)</sup> 분석단위인 뉴스기사마다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수행하는 귀납적 방법을 통해 주제문장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제 프레임을 도출한 뒤 개별 기사의 내용이 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별하였다.<sup>23)</sup>

22)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에는 주제 프레임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없다. 다만 『신문학』에 따르면, 보도물의 내용적 요소를 이루는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연관속에 하나로 통일시키는 기사의 기초이며 핵”(132쪽)을 기사의 ‘종자’라고 강조한다. 특히, 특정 문제를 다루는 보도에서 기자의 견해와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일을 두고 ‘기사와 편집물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사의 종자, 사상적 알맹이를 바로 잡았다’고 말한다.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펼치는 원칙’은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이 강조하는 신문 활동의 3대원칙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하지만 실제로 종자는 ‘수령의 교시와 지도자의 말씀, 그리고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방침’을 말한다. 이처럼 종자란 기사에서 주장하거나 전달하려는 당 중앙의 핵심 메시지라는 점에서 미디어 패키지의 일종인 주제 프레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기사의 보도형식과 관련하여 기사유형, 기사출처, 교시인용, 사진처리, 기사크기 등에 주목했다. 기사유형은 서술양식에 따른 기사문의 형태를 말한다. 스트레이트, 의견, 피쳐, 사진으로 구분하였다.<sup>24)</sup> 기사출처란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공한 자로서 바이라인(byline)의 정체를 말한다. <본사기자 ○○○> 등 해당 출처가 명시되었을 경우 이를 유목화 하여 측정하였다. 북한신문의 기사작성 방식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본문의 주요 대목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교시인용 여부에 따라 기사를 구분하였다. 사진처리란 기사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써 본문 사이에 관련 사진을 게재하는 편집방식을 말한다. 사진의 편집 유무에 따라 기사를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사크기는 해당 기사가 지면에서 차지하는 면적(cm<sup>2</sup>)을 말한다.

기사유형, 국가유형, 주제영역, 주제 프레임, 이미지 등 주요변인의 최종 코더간 신뢰도(홀스티)는 .95~1.00이었다.<sup>25)</sup> 내용분석을 통해 유목화한 변

23) 기사의 주제 분석 결과 모두 19개의 개별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처음에 도출한 주제 프레임은 반미(반미투쟁), 반일(반일투쟁), 비동맹자주화, 반자본주의투쟁, 반제국주의투쟁, 사회주의찬양, 사회주의연대, 사회발전상, 사회불안상, 북한정부지지, 김일성찬양, 김정일찬양, 반이스라엘, 반세계화, 국제사회협력(교류), 사회주의혁명선동, 반핵, 반전, 자본주의사회문제 폭로 등이었다. 실제 분석에 선 사례수가 적거나 주제의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프레임을 같은 유목으로 묶어 11종의 프레임 유목을 사용하였다.

24) 『신문학개론』은 일반기사(보도기사), 사론설, 연문기사(교양기사), 신문사진 등으로 기사유형을 분류한다(397~408쪽). 우리에게 친숙한 기사유형과 대체로 일대일 대응 관계가 형성된다는 평가(김영주, 1999)에 따라 보도기사는 스트레이트로, 사론설은 의견으로, 교양기사는 피쳐로 각각 처리하였다. 김일성 부자에 관한 영도기사, 덕성기사 등은 북한의 이론서에 따르면 교양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제뉴스에서 김 부자 관련 기사의 경우 '00나라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찬양하는 집회나 모임을 열었다'는 식의 소개 선전기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은 스트레이트 기사로 분류하였다.

25) 코딩작업은 내용분석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신문방송학 전공 대학원생 2명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최소 .85 이상의 코더간 단순일치도 확보를 목표로 전체 표본기사를 먼저 정독하는 기간을 포함, 열흘 정도의 훈련을 받은 뒤 코

인들을 교차시켜 보도 패턴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변인이 명목 수준에서 측정되어 카이 스퀘어 검증을 활용하였다.

#### 4. 분석결과 및 논의

##### 1) 국가유형에 따른 북한신문의 국제뉴스 보도

###### (1) 국가유형에 따른 기사 보도량

연구문제 1-1에 답하고자 국가유형별 보도량을 검토하였다<표 1>. 보도된 기사 수는 3세계 207건, 1세계 196건, 2세계 95건, 그리고 국제기구 32건의 순이었다. 전체기사면적은 1세계, 3세계, 2세계, 국제기구 순이었다. 전체 기사건수나 기사크기를 기준 삼았을 때 북한신문은 3세계권이나 1세계권 관련 뉴스를 비슷한 비중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세계권 국가와 관련된 국제뉴스 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제뉴스 흐름의 양적 불균형 문제는 적어도 북한신문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유형에 속하는 국가수를 감안하여 단위국가 당 보도빈도와 기사크기를 분석한 결과, 북한신문 역시 1세계권 국가에 대한 기사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반면 3세계권 국가에 대한 보도가 가장 적은

---

등을 시작했다. 코딩에 착수할 당시의 1차 신뢰도 측정결과는 기사유형 .88, 국가유형 1.00, 주제영역 .91, 주제 프레임 .87, 국가 이미지 .95, 지도자 이미지 .94였다. 코더는 작업 도중 판단이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면 연구자와 토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를 입력하도록 사전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스트레이트성 단신이 대다수이고 서술표현 또한 분명하고 직설적인 편이라 초기의 이견은 코더들이 지침에 익숙해지면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극복되었다. 최종 코더간 신뢰도는 입력이 끝난 후 무작위로 선정한 40개 기사를 측정할 결과이다. 주제영역, 주제 프레임의 하위유목은 마지막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몇 개씩 유사한 유목으로 묶는 과정을 거쳤는데 코더간 신뢰도 점수를 조금씩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국가 당 보도빈도는 1세계권(11.53건), 2세계권(6.33건), 국제기구(5.33건), 3세계권(3.70건) 순이었다. 단위국가 당 기사크기 역시 1세계권( $813.32\text{cm}^2$ ), 2세계권( $457.76\text{cm}^2$ ), 국제기구( $337.45\text{cm}^2$ ), 그리고 3세계권( $195.11\text{cm}^2$ ) 순이었다. 3세계권 관련 뉴스는 사실정보를 단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북한신문은 3세계권 국가보다 1세계권 및 2세계권 국가에 대해 더 심층적인 보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6)</sup>

그런데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주변의 4대강국에 집중되므로 보도량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전체 국제뉴스 대비 기사건수는 34.91%, 기사면적은 47.29%에 이르기 때문이다.<sup>27)</sup>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가 체제유지 보장과 경제지원 확보에 있는 만큼 주변의 4대강국에 국제보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외교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sup>28)</sup>

## (2) 국가유형에 따른 주제영역과 주제 프레임

연구문제 1-2를 해결하고자 북한신문의 국제뉴스에서 국가유형에 따른 주제영역과 주제 프레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2>). 국가유형에 관계

---

26) 단위기사 당 보도면적에서도 3세계권( $63.27\text{cm}^2$ )보다 1세계권( $70.54\text{cm}^2$ )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27$ ,  $df=3$ ,  $526$ ,  $p<.05$ ).

27) 1세계권 보도에서 미국의 비중은 기사건수의 36.73%(72건), 기사면적의 51.27%( $7088.44\text{cm}^2$ )에 이른다. 일본도 기사건수의 22.96%(45건), 기사면적의 25.68%( $3550.88\text{cm}^2$ )을 차지한다. 1세계권에서 두 나라의 비중은 건수 대비 59.69%, 면적 대비 76.95%이다. 2세계권 보도에서 러시아는 기사건수의 48.42%(46건), 기사면적의 47.29%( $3247.18\text{cm}^2$ )를 차지하며, 중국도 기사건수의 23.16%(22건), 기사면적의 29.49%( $2024.81\text{cm}^2$ )에 이른다. 2세계권에서 두 나라의 비중은 건수 대비 71.58%, 면적 대비 76.78%에 달한다.

28)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 4대강국 외교를 기본축으로 삼고 서방권 및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보조축으로 하는 외교 전략을 유지해왔다(정규섭, 1999). 물론 남한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핵심 구성원이다. 우리나라 언론의 국제보도 역시 주변 4대강국에 집중되어 있다(한국언론재단, 2002).

<표 1> 국가유형에 따른 국제뉴스 보도량

(괄호 안은 %)

국가유형	①보도대상국	②총보도건수	③총기사면적(cm <sup>2</sup> )	②/①	③/①	③/②
1세계	17(18.09)	196(36.98)	13826.47(41.10)	11.53	813.32	70.54
2세계	15(15.96)	95(17.92)	6866.36(20.41)	6.33	457.76	72.28
3세계	56(59.57)	207(39.06)	10926.00(32.48)	3.70	195.11	52.80
국제기구	6(6.38)	32(6.04)	2024.72(6.02)	5.33	337.45	63.27
계	94(100.0)	530(100.0)	33643.55 (100.0)	26.89	357.91	63.48

<표 2> 국가유형에 따른 주제영역 및 주제 프레임(N=530)

(단위: 건수(%))

	1세계 (N=196)	2세계 (N=95)	3세계 (N=207)	국제기구 (N=32)	계	통계치
주제영역						
정치·국제정치	70(35.7)	27(28.4)	79(38.2)	14(43.8)	190(35.8)	$X^2 = 78.81$ df = 24 p < .001
경제·국제경제	31(15.8)	8( 8.4)	43(20.8)	3( 9.4)	85(16.0)	
사건사고·사회	47(24.0)	17(17.9)	31(15.0)	3( 9.4)	98(18.5)	
문화·교육·예술	11( 5.6)	16(16.8)	17(8.2)	0( 0.0)	44(8.3)	
종교·종교분쟁	8( 4.1)	0( 0.0)	8(3.9)	5(15.6)	21(4.0)	
군사·국방·안보	21(10.7)	19(20.0)	12(5.8)	1( 3.1)	53(10.0)	
보건·복지·의료	2(1.0)	1( 1.1)	9(4.3)	3( 9.4)	15(2.8)	
과학·기술·환경	6(3.1)	7( 7.4)	7(3.4)	2( 6.3)	22(4.2)	
내전·쿠데타·전쟁	0(0.0)	0( 0.0)	1(0.5)	1( 3.1)	2(0.4)	
주제 프레임						
반미·반미투쟁	68(34.7)	11(11.6)	57(27.5)	15(46.9)	151(28.5)	$X^2 = 238.45$ df = 30 p < .001
반일·반일투쟁	21(10.7)	2( 2.1)	0( 0.0)	0( 0.0)	23( 4.3)	
비동맹자주화	0( 0.0)	3( 3.2)	16( 7.7)	1( 3.1)	20( 3.8)	
반자본·반제투쟁	3( 1.5)	1( 1.1)	6( 2.9)	3( 9.4)	13( 2.5)	
사회주의연대·혁명	1( 0.5)	19(20.0)	3( 1.4)	0( 0.0)	23( 4.3)	
사회발전상	13( 6.6)	35(36.8)	56(27.1)	3( 9.4)	107(20.2)	
사회불안상	59(30.1)	9( 9.5)	25(12.1)	3( 9.4)	96(18.1)	
북한지지·김부자찬양	1( 0.5)	7( 7.4)	19( 9.2)	0( 0.0)	27( 5.1)	
국제사회교류협력	2( 1.0)	1( 1.1)	6( 2.9)	3( 9.4)	12( 2.3)	
반전·반핵	8( 4.1)	2( 2.1)	13( 6.3)	3( 9.4)	26( 4.9)	
자본주의사회문제	20(10.2)	5( 5.3)	6( 2.9)	1( 3.1)	32( 6.0)	

없이 정치 분야의 보도빈도가 가장 높고 사회, 경제, 군사 관련 분야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1세계권 국가의 보도는 재난, 범죄 등 사건사고와 사회문제 분야에 집중되는 반면, 2세계권 국가의 보도는 군사·국방·안보 분야의 빈도가 높았으며, 3세계권 국가 뉴스는 경제 분야의 비중이 컸다. 국제기구의 경우 국제정치 분야에 국제뉴스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주제영역의 경우, 2세계권 국가의 보도에서 문화·교육·예술 분야의 빈도가 높았으며, 국제기구 관련 보도는 종교(종교분쟁) 분야의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보도하는 주제영역의 상대적 비중 차이는 북한신문이 국제사회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두는 분야가 국가유형에 따라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보도하는 시각 또한 차별적이라는 점을 말한다.

이어서, 국가유형에 따라 어떤 주제 프레임이 강조되는지 분석하였다. 1세계권 보도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주제 프레임은 미 정부와 부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서방 선진국들의 활동을 알리는 반미·반미투쟁선전과 범죄, 환경재난, 사고 등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불안상이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적 과오를 거세게 비난하는 반일·반일투쟁선전 프레임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2세계권 보도에서 강조하는 주제 프레임은 정부혁신, 기술개발, 주택건설 성과 등 옛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발전상을 다양하게 소개하거나 이들 국가간의 사회주의 연대와 혁명을 부추기는 내용이었다. 3세계권 관련 보도에서는 이들 국가에 만연한 반미 분위기와 반전시위 등을 전하는 반미·반미투쟁선전 프레임과 각국의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거나 그 성과를 보도하는 사회발전상 프레임을 강조하였다. 재난, 사고 등 사회불안상도 어느 정도 부각되었다. 특히, 2세계권과 3세계권 보도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 북한정부를 지지한다거나 김일성 부자를 흠모하는 각종 행사와 선언이 빈번하다고 소개하는 선전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비중도 높았다. 국제기구에 대한 보도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인 국제기구가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식의 주제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제 프레임 교차분석은 국제뉴스를 통해 북한주민에게 전파하려는 국제정세선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도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수많은 북한지자 보도는 북한이 2·3세계의 우방들과 연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결코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반미투쟁 보도의 과도함은 세계각지의 반미투쟁 사례가 증명하듯 당 중앙의 대미지주 외교노선이 올바른 조치하는 점을 선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여러 나라의 김 부자 흠모 선전은 국제적인 지지를 빌어 김정일 체제에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며, 사회발전상 보도는 발전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을 노력 동원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신문의 국제뉴스가 강조하는 주제 프레임의 메시지, 곧 미디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전혀 고립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 국제정세는 반미와 반제에 앞장서는 수많은 발전적·혁명적 우방들이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흠모하고 따르며,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 국제기구 등에서 우리나라를 적극 지지하여 미제와 주구들을 압박해 가는 추세에 있다. 모두 당의 지도아래 뿔뿔 뭉쳐 강성대국의 혁명과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이처럼 국가유형에 따른 국제뉴스의 주제영역 및 주제 프레임 분석을 통해 우리는 북한당국이 그리는 국제관계의 지형도와 이에 따른 대외정책의 거시적인 방향, 그리고 주민 선전동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sup>29)</sup>

### (3) 국가유형에 따른 국가와 지도자의 이미지

연구문제 1-3에 답하고자 국가유형에 따라 국가 이미지와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인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분석하였다<표 3>. 먼저 국가 및 국제기구의 이미지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1세계권 국가는 주로 부정/

29) 북한이 당면한 국제관계를 해결하려는 대외정책의 거시구도는 1세계권과의 적대적 긴장관계를 2세계권과의 정치·군사·안보적 연대와 3세계권과의 정치교류 및 경제협력으로 대처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긴장관계의 정치적 조율도 함께 모색하려는 진영 외교의 판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 표 3 > 국가유형에 따른 국가 이미지 및 지도자 이미지

(단위: 건수(%))

	1세계	2세계	3세계	국제기구	계	통계치
국가 이미지(N=530)						
긍정/우호	28(14.3)	69(72.6)	156(75.4)	19(59.4)	272(51.3)	$X^2 = 244.31$ $df = 6$ $p < .001$
중립	15( 7.7)	16(16.8)	25(12.1)	9(28.1)	65(12.3)	
부정/적대	153(78.1)	10(10.5)	26(12.6)	4(12.5)	193(36.4)	
지도자 이미지(N=120)						
긍정/우호	0( 0.0)	23(69.7)	40(65.6)	0( 0.0)	63(52.5)	$X^2 = 89.59$ $df = 6$ $p < .001$
중립	7(33.3)	10(30.3)	21(34.4)	5(100)	43(35.8)	
부정/적대	14(66.7)	0( 0.0)	0( 0.0)	0( 0.0)	14(11.7)	

적대적으로 그려졌지만 2세계권 및 3세계권 국가는 대체로 긍정/우호적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기구의 이미지도 긍정/우호적으로 나타났다.

국가유형에 따른 지도자 이미지의 교차분석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1세계권 국가의 지도인사는 부정/적대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압도적인 반면, 2세계권과 3세계권 국가의 지도인사 대다수는 긍정/우호적으로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계권 지도자를 긍정/우호적으로 묘사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세계권과 3세계권 지도자를 부정/적대적으로 그린 기사도 전혀 없었다. 사례수가 적은 국제기구의 지도자는 모두 중립적으로 그려졌다. 국제뉴스에서 묘사되는 지도자의 이미지는 북한의 대외관계를 반영하듯 국가유형에 따라 호불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보였다.

국가 이미지 및 지도인사 이미지라는 질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3세계권 국가에 대해 긍정/우호적인 뉴스를, 1세계권 국가에 대해 부정/적대적인 뉴스를 제공한다. 이런 결과는 단위국가 당 3세계권 국가보다 1세계권 국가에 대한 보도가 더 많다는 앞의 분석<표 1>과 대비된다. 일반적으로 국제뉴스 흐름의 질적 불균형 논쟁은 자본주의 언론의 3세계권 국가 보도가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내전·쿠데타 등 갈등뉴스나 사고, 범죄, 자연재해 같은 부정적인 정보 일색이라는 주장과 관련 있다. 그러나 북한신



문의 경우, 국제뉴스 흐름의 불균형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단위국가 당 1세계권 국가에 대한 보도가 3세계권 국가보다 양적으로 많고 심층적이지만 그 내용은 질적으로 거의 부정/적대적인 관점의 뉴스로 채워져 있는 반면, 3세계권 국가의 보도는 비록 양적으로 적고 단편적이지만 질적으로 긍정/우호적인 관점의 뉴스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sup>30)</sup> 상업주의 논리를 따르는 우리나라 신문의 국제보도는 여전히 정보흐름의 불균형 문제를 노출한다(구교태·김세철, 2004). 그러나 정치 이데올로기 논리를 따르는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대조적인 보도 성향을 보여준다.

## 2) 주변 4대강국 관련 보도

당 대외정책이 지닌 탈냉전기적 특성을 북한신문의 국제보도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검토(연구문제 1-4)하고자 보도가 집중되는 주변 4대강국 뉴스를 그들이 속한 국가유형권의 뉴스와 각각 비교하였다<표 4>.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제외한 주제영역 분석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은 미일을 제외한 1세계권 국가 뉴스에서 문화·교육·예술 분야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전방위 외교의 한 축이 서유럽 등 서방권 국가와의 관계개선이라는 점에서 볼 때 비정치적 교류와 관련된 분야의 보도빈도가 높다는 결과가 흥미롭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관련 뉴스에선 상대적으로 군사·국방·안보 분야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미, 대일 관계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던 군사적 긴장관계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2세계권 국가 보도에선 문화·교육·예술과 사회(사건·사고 등)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제 분야의 빈도는 아주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관련 뉴스의 경우, 군사·국방·안보 및 경제 분야의 상대적 보도빈도가

30) 단위국가 당 3세계권 국가보다 2세계권 국가에 대한 뉴스가 양적으로 더 많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3세계권 국가만큼이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다. 옛 사회주의권과 선린우호 관계를 지속해 가려는 북한당국의 실용적인 대외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옛 사회주의 2세계권과의 우호친선도 중요하지만, 체제보전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화급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을 두 나라와의 실리적인 관계회복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책의지와 관련 있어 보인다.<sup>31)</sup>

주제 프레임 분석에 따르면, 미일을 제외한 1세계권 국가 보도에선 반미, 사회불안상, 자본주의 사회문제 폭로에 프레임이 집중되면서도 사회발전상 프레임의 빈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관련 뉴스의 경우 사회발전상 프레임은 단 1건씩 보도하는데 그쳤다. 2세계권 국가 보도의 경우, 대체로 사회발전상과 사회주의 연대와 혁명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 관련 보도에선 사회발전상 프레임이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였다. 옛 사회주의권 국가나 3세계권 국가와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더라도 북한은 이 두 나라를 여전히 발전모델과 경제협력의 주축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1세계권 국가 뉴스에서 상당한 정도의 긍정/우호적인 보도태도가 나타나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보도가 부정/적대적인 이미지 일색인 점과 뚜렷이 대비된다.<sup>32)</sup> 같은 1세계권임에도 두 나라와 달리 비정치적 교류 분야의 토착과 사회발전상 프레임의 상대빈도가 높다는 앞의 분석과 같은 맥락의 보도 패턴이다. 서방권과 관계 다변화를 모색하는 전방위 외교의 특성을 반영한다. 인도적 지원의 창구, 외교관계의 협조자로서 서유럽이 지닌 가치를 염두에 둔 듯하다. 그에 비해 미일 관련 보도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대립관계는 두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대외정책의 최종목표로 삼으면서도 이들과의 대결자세에서 발생하는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주민동원과 내부 단결에 이용하려는 이중적인

31) 탈냉전기 북한-러시아-중국의 관계 재정립을 설명하는 ‘신북방삼각관계’는 이 데올로기의 퇴색 대신 경제실리주의와 군사안보적 협력을 특징으로 한다(백인학 외, 2001). 그런데 분석기간이었던 2003년의 경우 미 부시 정부의 대북압박이 노골적이었으므로 대러·중 관계에서 경제교류보다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조하던 시기적 특성도 지닌다.

32) 일본에 대한 긍정/우호 이미지 뉴스는 모두 재일 조총련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표 4> 주변 4대강국 국제뉴스의 내용 특성(N=530)

(단위: 건수%)

	1세계 (N=79)	미국 (N=72)	일본 (N=45)	2세계 (N=26)	러시아 (N=47)	중국 (N=22)	3세계 (N=207)	국제기구 (N=32)
주제영역 <sup>a</sup>								
정치·국제정치	22(27.8)	35(48.6)	13(28.9)	8(30.8)	11(23.4)	8(36.4)	79(38.2)	14(43.8)
경제·국제경제	11(13.9)	12(16.7)	8(17.8)	1( 3.8)	5(10.6)	2( 9.1)	43(20.8)	3( 9.4)
사건사고·사회	23(29.1)	11(15.3)	13(28.9)	8(30.8)	7(14.9)	2( 9.1)	31(15.0)	3( 9.4)
문화·교육·예술	10(12.7)	1( 1.4)	0( 0.0)	5(19.2)	10(21.3)	1( 4.5)	17( 8.2)	0( 0.0)
종교·종교분쟁	6( 7.6)	2( 2.8)	0( 0.0)	0( 0.0)	0( 0.0)	0( 0.0)	8( 3.9)	5(15.6)
군사·국방·안보	3( 3.8)	9(12.5)	9(20.0)	2( 7.7)	12(25.5)	5(22.7)	12( 5.8)	1( 3.1)
보건·복지·의료	2( 2.5)	0( 0.0)	0( 0.0)	1( 3.8)	0( 0.0)	0( 0.0)	9( 4.3)	3( 9.4)
과학·기술·환경	2( 2.5)	2( 2.5)	2( 4.4)	1( 3.8)	2( 4.3)	4(18.2)	7( 3.4)	2( 6.3)
내전·쿠데타·전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1( 3.1)
주제 프레임 <sup>b</sup>								
반미·반미투쟁	18(22.8)	41(56.9)	9(20.0)	4(15.4)	5(10.6)	2( 9.1)	57(27.5)	15(46.9)
반일·반일투쟁	1( 1.3)	0( 0.0)	20(44.4)	0( 0.0)	0( 0.0)	2( 9.1)	0( 0.0)	15(46.9)
비동맹자주화	0( 0.0)	0( 0.0)	0( 0.0)	1( 3.8)	2( 4.3)	0( 0.0)	16( 7.7)	1( 3.1)
반자본·반제투쟁	3( 3.8)	0( 0.0)	0( 0.0)	0( 0.0)	1( 2.1)	0( 0.0)	6( 2.9)	3( 9.4)
사회주의연대·혁명	1( 1.3)	0( 0.0)	0( 0.0)	5(19.2)	8(17.0)	6(27.3)	3( 1.4)	0( 0.0)
사회발전상	11(13.9)	1(1.4)	1(2.2)	6(23.1)	19(40.4)	10(45.5)	56(27.1)	3( 9.4)
사회불안상	32(40.5)	16(22.2)	11(24.4)	3(11.5)	5(10.6)	1( 4.5)	25(12.1)	3(9.4)
북한지지·김부자찬양	1( 1.3)	0( 0.0)	0( 0.0)	3(11.5)	3( 6.4)	1( 4.5)	19( 9.2)	0( 0.0)
국제사회교류협력	2( 2.5)	0( 0.0)	0( 0.0)	0( 0.0)	1( 2.1)	0( 0.0)	6( 2.9)	3( 9.4)
반전·반핵	4( 5.1)	4( 5.6)	0( 0.0)	0( 0.0)	2( 4.3)	0( 0.0)	13( 6.3)	3( 9.4)
자본주의사회문제	6( 7.6)	10(13.9)	4( 8.9)	4(15.4)	1( 2.1)	0( 0.0)	6( 2.9)	1( 3.1)
보도국 이미지 <sup>c</sup>								
긍정/우호	22(27.8)	1( 1.4)	5(11.1)	16(61.5)	34(72.3)	19(86.4)	156(75.4)	19(59.4)
중립	12(15.2)	1( 1.4)	2( 4.4)	3(11.5)	11(23.4)	2( 9.1)	25(12.1)	9(28.1)
부정/적대	45(57.0)	70(97.2)	38(84.4)	7(26.9)	2( 4.3)	1( 4.5)	26(12.6)	4(12.5)

주: a:  $X^2=135.58$ ,  $df=56$ ,  $p<.001$ , b:  $X^2=453.22$ ,  $df=70$ ,  $p<.001$ , c:  $X^2=280.72$ ,  $df=14$ ,  $p<.001$

의도를 반영한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의 이미지가 기타 2세계권 국가들보다 훨씬 긍정/우호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신북방삼각관계’라는 한반도 주변 구도를 활용한 두 나라와의 선린 유지를 북한이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단적으로 대변한다. 대외적으로 미일과의 관계개선 협상을 중재하도록 하면서 대내적으로 북한주민에게 믿을만한 지원군의 존재를 분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미일과의 긴장국면에서 발생하는 내부의 동요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의 기본이념과 활동원칙은 ‘자주, 평화, 친선’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1세계권 보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북한의 ‘자주’에 위협적인 미일 관련 보도는 부정/적대적인 태도와 군사적 긴장 일색이지만 인도적 지원이 용이한 서유럽 등 기타 국가에 대한 보도에선 긍정/우호적인 태도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 다변화의 신호이다. 2세계권 보도의 경우, 군사안보적 유대와 비정치적 교류를 강조하고 보도태도 또한 긍정/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중국과 경제 중심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해 ‘평화’ 구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친선’도 강조하는 변화된 정책행동을 반영한다. 3세계권 뉴스 역시 경제 분야에 집중되는 실리적 모습과 긍정/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보도 성향은 전방위적인 대외정책의 다변화 노선과 이중전략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신문의 국제보도는 진영 외교의 영향이 관성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방위 외교로 전환한 김정일 체제의 대외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의 관철을 위해 주민들을 선전 선동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 3)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국제보도 비교

#### (1) 보도형식 비교

연구문제 2-1을 해결하고자 두 신문의 기사유형, 사진처리, 기사출처, 교시인용 등 보도형식을 비교 분석하였다<표 5>. 서로 다른 날짜의 지면과

&lt;표 5&gt;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보도형식(N=735)

(단위: 건수(%))

보도형식	로동신문 (N=528)	민주조선 (N=207)	계	통계치
기사유형				
스트레이트	419(79.4)	155(74.9)	574(78.1)	$X^2 = 3.32$ $df = 3$ $p > .05$
의견기사	62(11.7)	34(16.4)	96(13.1)	
피차기사	5( 0.9)	3( 1.4)	8( 1.1)	
사진	42( 8.0)	15( 7.2)	57( 7.8)	
사진처리				
사진 무	483(91.5)	183(88.4)	666(90.6)	$X^2 = 1.65$ $df = 1$ $p > .05$
사진 유	45( 8.5)	24(11.6)	69( 9.4)	
기사출처				
조선중앙통신	421(79.7)	165(79.7)	586(79.7)	$X^2 = 4.40$ $df = 3$ $p > .05$
본사기자	47( 8.9)	17( 8.2)	64( 8.7)	
논설원	26( 4.9)	5( 2.4)	31(4.2)	
미상	34( 6.4)	20( 9.7)	54( 7.3)	
교사인용				
김일성 인용	24( 4.5)	6( 2.9)	30( 4.1)	$X^2 = 1.40$ $df = 2$ $p > .05$
김정일 인용	9( 1.7)	5( 2.4)	14( 1.9)	
미인용	495(93.8)	196(94.7)	691(94.0)	

기사임에도 형식면에서 두 신문의 국제보도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뉴스의 전체 보도건수와 기사크기만 다를 뿐 보도형식과 관련된 주요변인에서 두 신문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sup>33)</sup> 두 신문의 전체지면을 분석했던 선행연구(유재천, 1995; 추광영, 1991)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처럼 보도형식이 동일한 것은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국제뉴스를

33) 당보인 『로동신문』의 국제뉴스 보도량은 528건 41478.49cm<sup>2</sup>로 『민주조선』의 207건 18705.63cm<sup>2</sup>보다 월등하다. 이는 발행체제상의 두 신문 격차와 일치한다. 『민주조선』은 월요일에 휴간할 뿐 아니라 4면 발행일에는 남조선정세선전 기사와 국제정세선전 기사가 함께 마지막 면에 실리므로 국제뉴스 지면 자체가 『로동신문』에 비해 훨씬 적다.

다루도록 당이나 정부의 뉴스통제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 당과 정부의 언론정책과 보도방침이 두 신문의 일선기자들에게 속속들이 관철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국제뉴스의 80%를 <조선중앙통신>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두 신문의 기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국제보도 업무는 사론설류와 연문기사 작성에 그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2) 보도내용 비교

연구문제 2-2에 답하고자 두 신문의 주제영역과 주제 프레임, 그리고 국가(국제기구)와 그 지도자의 이미지를 차례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신문이 다루는 토픽(표 6)은 정치, 사회 및 경제 분야에 집중(약 72%)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교육·예술 및 군사·국방·안보 분야의 기사가 그 다음으로 높은 보도빈도를 보여준다. 자본주의 언론의 경우 정치 후진국에서 빈번한 내전·쿠데타 또는 국가간의 전쟁보도가 많은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신문에선 이 분야의 보도가 거의 없는 특징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로동신문』에서 경제와 사회(사건·사고) 분야의 보도 비중이 높은 반면 『민주조선』은 정치, 문화·교육·예술 및 군사·국방·안보 분야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주제 프레임 분석(표 6)에 따르면, 북한신문은 국제뉴스에서 핵심 주제로 반미·반미투쟁선전을 가장 빈번하게 부각시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신문을 합하여 거의 30%에 달하는 212건의 기사가 이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여러 나라의 사회발전상(128건)이나 사회불안상(115건)을 빈번하게 보도하였다. 세계 각국이 북한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을 지지하거나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한다는 선전기사도 54건으로 꽤 높은 보도빈도를 보였다.<sup>34)</sup> 북한지지·김 부자 찬양 프레임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34) 보도빈도가 적다고 편집상의 중요성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지지·김 부자 찬양 선전기사는 기사당 평균면적이 187.41cm<sup>2</sup>로 다른 주제 프레임에 비해 기사크기가 가장 크다. 국제면의 톱기사는 대개 김 부자 찬양이나 북한지지 선전기사들이며, 항상 큰 지면을 차지하는 편집을 하기 때문이다. 반자본·반제

<표 6>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주제영역과 주제 프레임(N=735)

(단위: 건수(%))

보도내용	로동신문 (N=528)	민주조선 (N=207)	계	통계치
주제영역				
정치·국제영역	214(40.5)	99(47.8)	313(42.6)	$X^2 = 48.65$ $df = 8$ $p < .001$
경제·국제경제	87(16.5)	10( 4.8)	97(13.2)	
사건사고·사회	95(18.0)	23(11.1)	118(16.1)	
문화·교육·예술	29( 5.5)	23(11.1)	52( 7.1)	
종교·종교분쟁	20( 3.8)	2( 1.0)	22( 3.0)	
군사·국방·안보	34( 6.4)	30(14.5)	64( 8.7)	
보건·복지·의료	20( 3.8)	6( 2.9)	26( 3.5)	
과학·기술·환경	29( 5.5)	12( 5.8)	41( 5.6)	
내전·쿠데타·전쟁	0( 0.0)	2( 1.0)	2( 0.3)	
주제 프레임				
반미·반미투쟁	169(32.0)	43(20.8)	212(28.8)	$X^2 = 80.46$ $df = 10$ $p < .001$
반일·반일투쟁	17( 3.2)	9( 4.3)	26( 3.5)	
비동맹자주화	14( 2.7)	18( 8.7)	32( 4.4)	
반자본·반제투쟁	11( 2.1)	14 (6.8)	25( 3.4)	
사회주의연대·혁명	10( 1.9)	21(10.1)	31( 4.2)	
사회발전상	100(18.9)	28(13.5)	128(17.4)	
사회불안상	95(18.0)	20( 9.7)	115(15.6)	
북한지사·김부자찬양	35( 6.6)	19( 9.2)	54( 7.3)	
국제사회교류협력	24( 4.5)	6( 2.9)	30( 4.1)	
반전·반핵	17( 3.2)	32(10.1)	38( 5.2)	
자본주의사회문제	36( 6.8)	8( 3.9)	44( 6.0)	

투쟁(133.30cm<sup>2</sup>), 반일·반일투쟁(125.12cm<sup>2</sup>), 반미·반미투쟁(104.51cm<sup>2</sup>) 프레임 기사의 평균면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빈도는 월등하지만 대부분 단신 처리하므로 사회발전상(51.26cm<sup>2</sup>), 사회불안상(34.04cm<sup>2</sup>) 프레임 기사는 크기가 작은 편에 속했다. 따라서 두 신문은 저널리즘 이론서가 강조하는 대로 국제정 세선전에서 취급해야 할 내용을 충실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동신문』은 위의 세 가지 주제 프레임을 『민주조선』보다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는 떨어지지만 『민주조선』은 비동맹자주화, 반자본·반제국주의투쟁선전, 사회주의연대 및 혁명고무, 반전·반핵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시킨 반면, 『로동신문』은 마약, 범죄 등 자본주의의 어두운 사회문제를 더 강조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어서, 두 신문에서 보도하는 국가유형과 국가 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표 7>. 상대적으로 『로동신문』은 1세계권 국가에 대한 보도 비중이 높은 반면 『민주조선』은 2세계권과 3세계권 국가를 더 많이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자체가 적은 국제기구 관련 보도에선 신문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보도국가 이미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로동신문』의 국제뉴스에서 보도국가의 이미지를 부정/적대적으로 묘사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민주조선』에서는 긍정/우호적으로 묘사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북한당국과 국제갈등을 빚는 1세계권 국가 뉴스를 『로동신문』이 『민주조선』보다 자주 취급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보도국가의 유형과 그 이미지에 대한 분석에서 관찰되는 두 신문간의 차이는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2세계권과 3세계권 국가에 대한 보도빈도가 높은 『민주조선』이 비동맹자주화, 반자본·

<표 7>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보도국가 유형과 이미지(N=530)

(단위: 건수(%))

보도내용	로동신문 (N=376)	민주조선 (N=154)	계	통계치
국가유형				
1세계	157(41.8)	39(25.3)	196(37.0)	$X^2 = 17.71$ df = 3 p < .05
2세계	54(14.4)	41(26.6)	95(17.9)	
3세계	142(37.8)	65(42.2)	207(39.1)	
국제기구	23( 6.1)	9( 5.8)	32( 6.0)	
국가이미지				
긍정/우호	173(46.0)	99(64.3)	272(51.3)	$X^2 = 16.32$ df = 2 p < .001
중립	47(12.5)	18(11.7)	65(12.3)	
부정/적대	156(41.5)	37(24.0)	193(36.4)	



&lt;표 8&gt;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지도자 유형과 이미지(N=120)

(단위: 건수(%))

보도내용	로동신문 (N=86)	민주조선 (N=34)	계	통계치
지도자유형				
1세계	19(22.1)	2( 5.9)	21(17.5)	X <sup>2</sup> = 5.99 df = 3 p > .05
2세계	20(23.3)	13(38.2)	33(27.5)	
3세계	44(51.2)	17(50.0)	61(50.8)	
국제기구	3( 3.5)	2( 5.9)	5( 4.2)	
지도자이미지				
긍정/우호	40(46.5)	23(67.6)	63(52.5)	X <sup>2</sup> = 5.72 df = 2 p > .05
중립	33(38.4)	10(29.4)	43(35.8)	
부정/적대	13(15.1)	1( 2.9)	14(11.7)	

반제국주의투쟁, 사회주의연대 및 혁명고무, 반전·반핵 등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시키는데 비해 1세계권 국가의 뉴스가 많은 『로동신문』은 반미투쟁선전과 자본주의의 사회문제를 비판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앞의 주제 프레임 분석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당보인 『로동신문』이 대적 선전전에 주력하는 외부지향성이 강한 반면 정부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주민동원과 통제에 주력하는 내부지향성이 강하다는 역할 분담을 유추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신문에서 보도하는 각국 및 국제기구 지도인사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표 8>. 전체적으로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3세계권과 2세계권 국가의 지도자를 1세계권 국가나 국제기구의 인사보다 더 많이 보도하며, 지도자의 이미지도 긍정/우호 또는 중립적인 묘사가 부정/적대적인 묘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도자의 유형과 이미지 묘사에서 두 신문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보도국가의 유형에 따라 그 지도자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방향조차 일치할 정도로 두 신문은 정형화된 방식으로 국제뉴스를 처리한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국제뉴스의 보도형식과 내용을 비교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두 신문은 형식면에서 거의 일치하고 단지 주제영역이나 부각시키는 프레임, 그

리고 보도국가의 유형과 이미지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제정세선전이라는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두 신문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관심을 집중하거나 사안을 다루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당의 주체적 입장에 서서 정세를 선전’하라는 이론서의 지침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차이는 신문의 개성이라기보다 ‘독자 분할에 토대한 다른 얼굴의 한 목소리’(유재천, 1989)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 5. 맺음말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에 따르면, 당적신문은 국제정세선전을 통해 당 대외정책을 반영하고 관철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은 과거의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확보를 목표로 외교관계의 다변화와 이중전략을 구사하는 전방위 외교로 전환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신문은 이런 정책변화까지 잘 반영하여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환경의 변화 와중에서 국제보도의 실체는 어떤지 경험적인 확인의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신문의 최근 국제뉴스가 전환기의 당 대외정책이 지닌 탈냉전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며 그 보도 패턴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보도형식과 내용, 그리고 국가유형에 따른 정세선전의 특성을 중심으로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국제뉴스를 내용 분석하였다.

35) 내용상의 차이가 두 신문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두 신문이 강조하는 주제 프레임의 범위는 국제정세선전에 요구되는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넘어서지 않고 당 대외정책이 설정한 범위 안에 고착되어 있다. 가령, 두 신문의 국제뉴스에선 인권, 시민운동, 민주주의 등 서방세계가 주목하는 주제를 관찰할 수 없다. 이런 소재나 주제의 보도는 북한당국이 이해하는 방식의 국제정세 분석과 선전 그리고 이를 통한 인민대중의 통제와 동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유형에 따른 국제보도의 패턴은 국제정보 흐름의 불균형 현상과 대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1세계 서방권에 대한 보도는 양적으로 많고 심층적이지만 질적으로 부정적인 내용과 적대적인 관점의 보도가 많은 반면, 3세계 비동맹권 관련 보도는 비록 양적으로 적고 단편적이지만 질적으로 긍정적인 내용과 우호적인 관점의 뉴스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옛 사회주의 2세계권 보도 역시 양적으로 많고 질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국가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보도를 관찰할 수 있어 북한이 인식하는 국제관계의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다.

국제뉴스가 집중되는 한반도 주변 4대강국 관련 보도의 패턴분석은 흥미로운 사실을 나타냈다. 미국과 일본 관련 보도는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적대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내용이 절대 다수였으나 기타 1세계권 보도에선 비정치적 교류와 사회발전상 등 관계 다변화를 반영하는 긍정적 관점과 우호적인 내용을 상당수 관찰할 수 있었다. 2세계권 보도는 군사안보적 유대와 비정치적 교류를 강조하면서 보도태도도 매우 우호적이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관련 보도는 경제실리 중심의 새로운 외교관계 형성을 시사하는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주변 4대강국 보도 패턴은 당 대외정책의 탈냉전기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당 대외정책의 관철을 위한 당과 정부의 관점을 유추하고자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국제뉴스 보도 패턴을 비교하였다. 두 신문은 형식면에서 거의 유사하지만 토픽과 주제 프레임, 그리고 보도국가의 유형과 이미지에 있어 상대적인 보도차가 다소 관찰되었다. 당보인 『로동신문』은 대적 선전전에 주력하는 외부지향성이 강한 반면 정부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주민동원과 통제에 주력하는 내부지향성이 강한 경향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국제정세선전이라는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두 신문의 성격이 동일하지만 관심을 집중하거나 사안을 다루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국가의 뉴스통제가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두 신문의 내용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두 신문 모두 『조선중앙통신』에 대다수의 국제뉴스를 의존하고 있고,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는 주제 프레

임의 범위가 당 대외정책의 이데올로기 정향을 벗어나지 않고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제정세선전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이론서가 강조하는 자료와 내용을 벗어난 소재나 주제의 뉴스를 전혀 관찰할 수 없었다. 형식은 물론 내용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차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과는 그만큼 두 신문 모두 저널리즘 이론서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국제뉴스를 보도한다는 사실을 말한다.<sup>36)</sup>

이상의 국제뉴스 보도 패턴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북한신문의 최근 국제보도가 전방위 외교로 전환한 김정일 체제의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주민을 선전 선동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의 동시 확보를 노리는 전방위 외교정책의 양면성은 군사주의와 경제실리주의라는 강온전략을 함께 구사하는 가운데 대외관계 개선과 내부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중적인 의도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관계개선을 위한 대외정책의 입안과 수행은 외교 담당자의 몫이다. 그러나 정책 과정에 따르는 정당성 확보, 이견 확산의 원천봉쇄와 불안감 해소 등 정책수행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내부 응집과 지원, 즉 주민의식화와 동원 문제는 언론의 국제보도가 전담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북한체제에서 대외정책의 성공은 정책내용이나 협상과정과 별도로 언론이 이러한 대내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서 내부단결과 통제를 유지하느냐에 상당히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변화된 국제환경에서도 여전히 당 중앙이 판단하고 의도하는 대로 국제관계의 지형에 따라 정세추이를 신속하게 보도해야 하는 이유, 저널리즘 이론이 강조하는 국제정세선전의 내용·방법적 지침과 국제보도의 실재가 서로 일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37)</sup> <표 9>는

36) 두 신문에서 의미 있는 보도차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분석결과는 '당의 주체적 입장'을 획일적으로 따르는 국제정세선전의 관행에 두 신문 모두 충실했음을 뜻할 수는 있으나 당 대외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전략적 위치마저 동일하다는 것까지 의미하진 않는다. 물론 이번 연구가 이 관계를 분명하게 규명한 것은 아니다. 후속연구에선 더 정교한 분석유무를 설정하거나 질적 분석을 통해 두 신문의 보도차가 대외정책의 관철 과정에서 당과 정부의 역할이 서로 다른 점까지 반영하는 것인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lt;표 9&gt; 북한의 당 대외정책과 국제보도의 조응관계

	대외정책	국제뉴스
기초	자주·평화·친선	국제정세선전
목표	체제보장, 경제지원 확보	당 대외정책의 반영·관철
행동	전방위 외교로 전환 이중전략 구사, 대상과 의제의 다변화 주변 4개국 외교 치중	정책범위 안에 주제 프레임이 고착 1-2-3세계권 보도의 차별화 주변 4개국 보도 집중
의도	대외관계 개선	외교적 고립감 탈피, 국제 연대성 고무
효과	내부단결과 주민통제	내부단결 의식화 및 동원 선전선동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생존이라는 당면 국익을 목표로 국제보도와 외교정책이 관계 맺는 북한 나름의 방식을 보여준다. 생존 자체가 위협 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내세우는 전방위 외교와 대미자주외교 노선이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선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발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행위자의 합리성이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부분의 정당성이 전체의 정당성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 정책의 합리성은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할 때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자발성을 추동하는 위력을 지닌다. 그러나 외교정책 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능동적인 역할(Cohen, 1963)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는 당과 정부에 장악된 언론의 국제보도가 국가의 외교정책 수행을 돕는 과정에서 주민을 통제하는 의식화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정책결정자에게 비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로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조성하는 촉매자로서 외교정책 과정에 유기적으로 관여하는 언론의 상대적 자율성은 북한의 언론이론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역할이다. 다만 당의 무오류성이라는 대전제 아래 당 중앙이 내세우는 대외정책의 관점과 의도만을 유일하게 인

- 37) 따라서 국제환경과 당 대외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보도의 내용과 패턴도 신속하게 변화하겠지만 대외정책의 관철을 위해 주민 의식화와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국제보도의 대내적 역할은 정책변화의 시기적 특성에 관계없이 유지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북한에서 언론이 외교정책 수행의 협력자로 기능하는 방식이다.

정하고 이를 관찰하기 위해 국제정세선전 기사가 보도된다는 점에서 북한신문은 지배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 차원의 이데올로기 도구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언론이론이 전제하는 미디어의 강력효과 기저에도 불구하고 국제뉴스의 선전효과가 얼마나 주민의 자발성을 추동하거나 반선전(counter-propaganda)에 저항하는 사회적 면역성을 배양할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북한신문의 최근 국제뉴스를 분석하면서 이 연구는 변화하는 당 대외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뉴스가 탈냉전기 국제관계의 지형에 따라 어떤 보도 패턴을 지니는지 밝혔다. 이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정책의 변화와 언론보도의 조응관계는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패턴을 비교 추적해야 엄밀한 관계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어 이 연구는 보도형식 등 기초적인 내용분석 유목부터 다룰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 연구문제의 참신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감수해야 했다. 뉴스출처가 대부분 <조선중앙통신>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관련 연구는 당과 뉴스통신사 그리고 일반 매체 사이의 관계구조와 역할에 대한 제도분석이나 내부 조직관행 등 국제뉴스 보도시스템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 주제나 이슈와 관련하여 북한의 국제보도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좋다. 이 경우, 기사유형, 기사출처, 정세자료 등의 변인에서 더욱 정교한 하위유목을 설정해야 한다. 신문간의 미묘한 보도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대외정책의 관찰을 위해 당과 정부가 수행하는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모두 주변 4대강국에 국제뉴스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관련 사안이나 이슈에 관한 남북한의 국제기사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북한 언론의 이해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강현두 (1997). 『북한의 매스미디어』 서울: 나남.
- 구교태·김세철 (2004). 전국지와 지역지의 국제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경제학적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7호, 7~34.
- 김근식 (2002). 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진영외교에서 전방위의 교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151~166.
- 김영주 (1999). 북한신문기사론: 기사의 속성 및 집필원칙, 분류체계와 종류. 김영주·이범수 (1999). 『현대 북한 언론의 이해』(23~64쪽) 서울: 한울.
- 김영주 (1998). 『현대북한 언론연구: 내재적 관점을 중심으로』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영주 (1992). 북한 신문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신문리론>, <신문학>, <신문학개론>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 사회 문화』(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언론학논총), 제2호, 131~153.
- 김영주·이범수 (1994). 『김정일 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 서울: 한울.
- 김정현·구자숙·한준 (1999). 남북한 신문의 통합적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북관계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통권 제25호, 139~173.
- 박성관 (2003). 북한의 대동남아 외교변화. 『국제정치논총』제43집 3호, 235~253.
- 박춘서 (1998). 북한 언론과 나치즘 언론의 비교연구: 양국의 언론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 43-2호, 73~108.
- 백인학·홍민식·김승채 (2001). 김정일 정권의 '신북방삼각관계' 분석: 로동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1호, 83~124.
- 안영섭 (2000). 남북한 언론체제의 차이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제 34집 3호, 193~215.
- 엄기영 (1989). 『신문학개론』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영주(1998). 『현대북한 언론연구: 내재적 관점을 중심으로』(265~441쪽)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 유재천 (1995). 『북한 언론의 이해』 서울: 공보처.
- 유재천 (1989). 『북한의 언론』 서울: 을유문화사.

- 이성봉 (2004).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관계.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155~171.
- 이창현(1999). 남한에서의 북한방송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2호, 137~173.
- 임재형(2001). 탈냉전기 북한외교정책의 변화요인과 대응전략: 김정일시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4호, 105~125.
- 정규섭 (1999). 김정일 체제의 외교정책: 지속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1호, 33~55.
- 조형창·리준하 (1982). 『신문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영주·이범수 (1994). 『김정일 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41~330쪽) 서울: 한울.
- 추광영 (1991). 북한신문의 특성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북한 언론의 특성에 관한 내용분석적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 한국언론재단 (2002). 『한국의 국제뉴스: 신문·뉴스통신 보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언론재단.

- Boyd-Barrett, O. (1980). *The international news agencies*. Beverly Hills, CA: Sage.
- Boyd-Barrett, O. & Rantanen, T. (eds.) (1998). *The globalization of news*. London: Sage.
- Cobb, R. W. & Elder, C. D. (1971). The politics of agenda-building: An alternative perspective for modern democratic theory. *Journal of Politics*, 33, 892~915.
- Cohen, B. (1963). *The press and foreign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earing, J. W. & Rogers, E. M. (1996). *Agenda-setting*. Thousand Oaks, CA: Sage.
- Fortner, R. (1993). *International communication: History, conflict and control of the global metropolis*. Belmont: Wadsworth.
- Frederick, H. (1992). *Global communic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elmont: Wadsworth.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



- 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Kurian, G. T.(1992). *Encyclopedia of the third world*(4th ed.). NY: Maple-Vail.
- Nye, J. (1990). Soft power. *Foreign Policy*, 80, 153~171.
- Tankard, J. W. (2001).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S. Reese, O. Gandy, & A.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husu, D. K. (2000).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ntinuity and change*. London: Arnold.
- van Ginneken, J. (1998). *Understanding global news: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 Wells, A. (ed.) (1996). *World broadcasting: A comparative view*. Norwood, NJ: Ablex.

(최초 투고 2005.9.1, 최종원고 제출일 2005.10.28)

## A Content Analysis of International News in the North Korean Newspapers

The Relationships Between Foreign Policy of the Labor Party and Propaganda of  
Foreign Affairs

Kyungm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zes contents of international news in the North Korean newspaper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foreign policy of the labor party and propaganda of foreign affairs. The results show that international news of *the Rodong shinmun* and *Minjoo Chosun* as the ideological apparatus reflects the recent changes of foreign policy of the Kim Jung-Il regime, aiming at the successful control and mobilization of the people. However, the coverage difference between two newspapers has not been found, which means that the press control of the state is routini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al power and the press in North Korea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Key words: *the Rodong shinmun*, *Minjoo Chosun*, international news, foreign policy